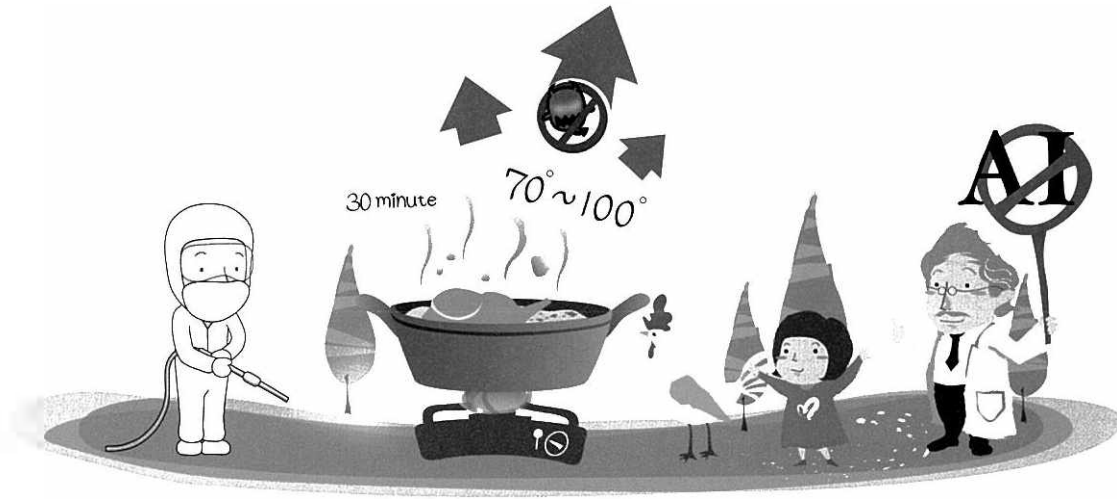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닭고기를 먹으면 AI 걸리나?



조류 인플루엔자(AI)는 닭·칠면조·오리·야생 조류 등이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전염병이다. 극히 드물지만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인수(人獸)공통 전염병이다. AI 바이러스는 H5N1 바이러스 등 고(高)병원성과 독성이 약한 저(低)병원성으로 분류된다. 이중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이다. 국제동물보건기구(OIE)는 AI를 가장 위험한 가축 전염병으로 간주한다.

닭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되면 80% 이상이 죽는다. 오리는 감염돼도 별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대개는 사료를 덜 섭취하고 알을 덜 낳는 증상을 보이며 일부가 폐사한다. AI 바이러스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 위험이 가장 큰 것은 H5N1이다. 1997년 홍콩에서 첫 AI 감염환자가 발생한 이후 동남아에서는 생명을 잃은 사람도 소수지만 있다. 대개 H5N1에 감염된 가금류를 취급한 사람이나 이들과 접촉한 어린이의 호흡기를 통해 AI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익힌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서 감염될 위험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익힌 닭고기·오리고기·달걀 섭취로 AI에 감염될 위험은 일절없다고 결론지었다. EU(유럽연합)도 소비자들에게 “지레 겁먹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시판 중인 닭·오리고기는 검사를 통해 ‘안전’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병들거나 죽은 닭이나 오리·야생 조류를 맨 손으로 만지는 것은 금물이다. AI 때문에 닭고기 섭취가 망설일 필요는 없다. 더욱이 AI 바이러스는 75도에서 5분만 가열해도 파괴될 만큼 열에 약하다. 치킨·삼계탕·백숙 등으로 요리하는 과정에서 AI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된다. **두레박**